

인천 서구, 올해도 골목상권 살리기 '올인'



시흥시 일자리센터 구직자 역량강화 교육 모습. 시흥시

시흥 "일자리 찾아드립니다" 취업 희망 교육참여자 모집

경기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일자리센터 팀(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은 3월부터 관내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련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는 취업교육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비자발적 실직자(휴·폐업, 정리해고, 사업부진 등)들이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한 구직자의 취업 활동을 돕고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의 진로설계와 면접 연습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신인교육, 소형건설기계(지게차) 면허과정, 기계설계(CAD)기초과정, 특수용접(TIG)기초과정, 관상관리사기초과정 등 총 5개 과정이 마련돼 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자신감 향상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모의면접 등 3일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교육과정의 수료생은 1대1 개별상담과 더불어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재취업 지원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및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031-310-6258)로 문의하면 된다.

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인천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최 22일부터 지역 현안 처리 예정

인천 남동구의회가 22일부터 4월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 12건 등이 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테 황규진, 오용환 의원이 발의한다.

3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4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78회 임시회는 폐회한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공동마케팅·상인대학 운영 등 예산 19억 편성 '핀셋 지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 중인 인천 서구가 올해도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등 '서구형 핀셋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인다.

서구는 15일 '2022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 자체 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 계획과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까지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13곳과 3월 지정 예정인 3곳 등 총 16곳의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지원 예산 19억원을 편성, 4대 분야 11개 세부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매니저를 통한 지정부터 활성화까지 원스톱 지원 △상점가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등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은 △컨설팅 지원사업(13곳, 1억9100만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20곳, 3억원) △지주 간판 설치 등 공동시설

환경개선(20곳, 6억원)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 경제 핵심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도 역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과 함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개 사업 통합공고로 시작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과 자격은 신청일 기준 '인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전국 최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인천 서구가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서구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 움직이는 시민들. 19일부터 서울과 천안 사이를 오가며 전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도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시스

서울·천안 대중교통도 환승할인 혜택

내일부터 교통비 1250원 경감 교통카드 시스템 준비 완료

서울과 천안 사이를 오가며 전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도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은 평택역 이후 충청도까지 연결됐지만 충청지역 버스과 광역전철 간 요금할인이 없어 두 교통수단을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 요금을 각각 지불해야 했다. 이번 천안형 환승할인제 도입으로 두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해 천안역에서 서울 시청역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버스비 1500원, 광역전철비 3050원 등 모두 4550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환승 시 전철 기본요금 1250원을 경감받아 3300원만 내면 된다.

시청역에서 서울버스로 추가로 환승할 때에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을 연계 적용받아 이용 거리에 대한 할증 요금 5km당 100원만 내면 이용 가능하다. 천안형 환승할인에 따른 요금 할인소실은 천안시가 전액 지원한다.

천안형 환승할인을 받으려면 천안 시내버스에서 30분 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하고, 수도권 광역전철에서 45분 내

천안 시내버스를 타면 된다. 할인이 적용되는 역은 평택, 성환, 직산, 두정, 천안, 봉명, 쌍용, 아산, 탕정, 배방, 온양온천, 신창 등 12개 역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인천, 경기, 천안, 한국철도공사와 천안형 환승할인에 합의하고 19일 시행일에 맞춰 교통카드 시스템 준비를 완료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천안형 환승할인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교통복지 누리고, 충청권까지 넓어진 지역생활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두 도시의 동반 성장도 전망되는 만큼 수도권-지역 상생의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카이에디탈/뉴스시스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용자 지원... 최대 5000만원

공연장·전시관 등 운영자 대상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확대키로

인천 중구가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인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관광 및 준관광 시설에 대한 용자 지원에 나선다.

중구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공연장·전시관·갤러리 등 운영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중구는 매년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원 사업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자대상자의 대출부담금리가 조려로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자대상자 선정 절차가 까다로우며 최근 용자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일반대출금리(최고 연7% 이하) 중 연3% 대출금리를 용자대상자가



인천 중구의 개항장거리 모습. 중구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대출금리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중구가 은행에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협력은행(신한은행 인천중구청지점)과의 협약에 따라 정해진 금리(연3%)를 구가 은행에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용자신청자는 협약금리를 제외한 차액 대출금리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된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문화지구 내 관광(준관광)시설의 건축주 및 시설운영자이다. 관광(준관광)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

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연장, 전시관, 갤러리, 사진관, 갤러리점 커피전문점 등이다.

용자지원 대상이 되는 용자금액의 최고 한도는 5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용자신청자가 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적격심사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용자지원 조건 및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중구청 문화관광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아시안게임 3관왕 임춘애 씬과 함께 달려요

안산, 청소년 달리기교실 참가자 40명 모집 매주 토요일 화랑유원지 등서 달리기 운동

경기 (재)안산시청소년재단은 '아시안 게임 육상 3관왕 임춘애와 안산 생생 러닝메이트 달리기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어든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달리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단체 활동을 통한 인성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임춘애 경기 안산시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육상 800m·1500m·3000m 종목 3관왕으로, 그동안 육상 꿈나무들을 지도해온 경험을 살려 지난해 말부터 안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참가자들은 인바디검사와 건강체력평가(PAPS) 측정을 통해 체성분을 분석하고, 건강체력 수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매주 토요일마다 화랑유원지와 관내 주요 화천 등을 중심으로 걷기 및 달리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안산시에서 생생러닝메이트 달리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모집 인원은 관내 14~19세 청소년 40명으로,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이달 25일까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인천 남동구,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약국 사무원 양성 과정 올해 참여자 15명 모집

인천시 남동구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남동구는 최근 사업 협약기관인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동구 약사회와 함께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은 대단지 아파트와 종합병원들이 밀집한 남동구만의 지역 특색에 맞춰 지난해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참여자 15명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고 1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남동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5~6월 중 경력단절·신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약 15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 인천시는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사업을 추진한다. 남동구

센터는 7월부터 △약국 전산 프로그램 등 직업교육 △약국 현장 실습 △학습동아리 구성 등 체계적인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강호 구정장은 "남동구가 지난해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든든한 민관 협력체계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